

# 中年期 女性들의 身體的 滿足度와 衣服行動과의 相關研究

李 英 倫·姜 蕙 遠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Behavior of Korean Middle-aged Women

Young Yun Lee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82.6.3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athexis and fiv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Body cathexis was measured by Secord and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fit in clothing was measured by Mclean's questionnaire, and three aspects of clothing were assessed with Lee, Lim, Lee, and Kahng questionnaire dealing with clothing satisfaction, status symbol, and fashion interest.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was determined by line drawings of clothing designs representing current fashion and non-current fashio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middle-aged women(40~64 year of age) in Seoul. The data for 351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t-test.

The results were:

- 1) Body cathexis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for early middle-aged women as well as advanced middle-aged women.
- 2) Body cathexis was positively related to fit in clothing for early middle-aged women as well as advanced middle-aged women.
- 3) Fashion interest wa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in early middle-aged women.
- 4) Scores of early middle-aged women on body cathexis, fit in clothing and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dvanced middle-aged women, that is, early middle-aged women had a higher self-satisfaction with body cathexis and fit in clothing. They also preferred modern fashions in contrast to be advanced middle-aged sample.

### I. 緒 論

衣服은 人間의 친밀한 一部分으로 개인의 용모뿐만

아니라 취향과 기호를 반영한다. 의복에 대한 關心이나 重要性은 유아기로부터 노년기까지의 發達段階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中年期에는 衣服에 대한 독특한 問題를 지니게 되므로 의복을 많이 의식하게 된다.

中年기에 있어 女性들은 體重이 증가할 뿐 아니라 體形이 변화하는 데 이러한 身體的 變化는 그들의 自我概念 중 특히 身體的 自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 및 衣服의 滿足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中年기에는 일반적으로 經濟的 여유가 생기고 여가시간이 많아져서, 女性들은 身分象徵의 手段으로서의 衣服에 關心을 갖게 된다. 그러나 流行에 대하여는 젊었을 때와 같이 높은 관심을 쏟지는 않게 된다. 이와 같은 中年기를 대상으로 한 衣服研究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具體的이고 實證的인 研究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本 研究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目的은 ① 中年기 女性들의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相關성을 규명하고, ② 中年前期와 中年後期 여성들의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을 비교하며, ③ 衣服行動의 다섯 측면 사이의 相關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 Ⅱ. 文獻的 背景

본 연구와 相關되는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年기 :** 中年기의 年齡 구분에 대하여, Hurlock<sup>1)</sup>은 40~60세로, Tate와 Glission<sup>2)</sup>은 40~64세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中年기를 40~64세로 한정하였으며, 40~49세를 中年前期, 50~64세를 中年後기로 나누었다. 이것은 Lugo와 Hershey<sup>3)</sup>의 일반적으로 폐경현상이 45~50세 사이에 일어난다고 한 진술과 Kaluger와 Kalger<sup>4)</sup>의 人體는 中年기가 進行됨에 따라 漸次로 變化하여 40代보다는 50代에 대부분의 特徵이 뚜렷하여진다는 서술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40代와 50代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精神的·身體的 側面에서 Ryan<sup>5)</sup>, Hurlock<sup>1)</sup> 및 Tate와 Glission<sup>2)</sup>등이 언급한 中年기 여성들의 身體的 特徵은 지방질이 下部로 向하는 경향이 있어 가슴은 줄 작아지고, 배와 엉덩이는 肥大하여지며, 허리선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어깨는 동글어지는 것 등이다. 精神的 側面에서 현대에 많은 中年층은 급속한 科學技術의 發達 및 社會變化, 그리고 젊음에 부여되는 높은 가치등에 의하여 자신의 位置에 의문을 가지며, 內的·外的으로 緊張感을 느낀다<sup>4)</sup>. 또한 中年기 여성들은 子女의 성장으로 인한 自由時間의 증가 및 經濟的 여유등으로 그들이 일찌기 못하였던 關心事 및 活動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外貌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된다<sup>1)2)</sup>.

**身體的 滿足度 :** Ryan<sup>5)</sup>은 自我概念을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身體的 自我는 개인에 의하여 認知된 自身の 身體的 特性으로서 신체적 자아에 관한 연구는 주로 外貌에 대한 滿足을 다루어 왔다고 하였다. Mclean<sup>6)</sup> 및 Willams<sup>7)</sup>에 의하면 개인의 身體的 部分, 機能 또는 過程에 대한 滿足度的 測定道具가 Secord와 Jourard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연구에서 身體的 滿足도가 自我概念과 全的으로 關聯된다는 것이 確信되었다. Richards와 Hawthorne<sup>8)</sup>은 衣服을 物理的 身體的 확장 또는 全人格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身體的 滿足도는 신체 機能 및 外貌에 대한 개인의 感情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衣服行動으로 反映될 수 있다고 하였다. Mclean<sup>6)</sup>의 20~3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中年기에는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의 滿足도 사이에 正的 상관관계가 있었다.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fit):** Kefgen과 Touche-Specht<sup>9)</sup>에 의하면 fit는 衣服을 選擇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fit에 대한 評價는 의복의 디자인 및 안락감에 대한 個人的 欲求에 의하여 달라지는 主觀的 評價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Ryan<sup>5)</sup> 및 Tate와 Glission<sup>2)</sup>은 中年기의 體形變化가 衣服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주된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Ryan<sup>5)</sup>이 인용한 Blair의 45~6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女性들이 體重의 증가로서 衣服의 fit가 문제되는 部位는 허리, 윗팔, 가슴, 어깨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衣服의 滿足度 :** 男·女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임춘봉<sup>10)</sup>의 연구 및 成人 男子를 대상으로 한 이경손<sup>11)</sup>의 연구에서 自我概念과 衣服의 滿足도와는 正的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신옥순<sup>12)</sup>의 연구에서도 自我正體感이 높은 집단이 外貌에 대한 自己滿足도 높게 나타났다.

**身分象徵性 :** Hurlock<sup>1)</sup>은 中年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身分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物質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身分象徵의 手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衣服이라고 하였다. Creekmore<sup>13)</sup>에 의하면 직업을 안 가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Gate의 연구에서 地位와 權威를 追求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경향은 동료집단에 同調하지 않는 衣服 및 새로운 流行에 關心을 가지며, 衣服으로써 다른 사람을 評價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금실<sup>14)</sup>의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衣服의 身分象徵性은

誇示欲求, 地位不一致 및 流行과 正的 상관계가 있었다.

流行에 대한 關心: 中年期 女性들의 유행에 대한 관심은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여성들은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질이 좋은 衣服을 구입하며, 젊었을 때 보다 fad 나 最新流行 스타일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며<sup>2)</sup>, 이들은 젊었을 때 보다 가능한한 保守的으로 옷을 입으려하고 流行에는 집착하지 않는다<sup>1)</sup>.

流行 스타일: 1981년 봄과 여름의 流行傾向에 대하여 Vogue<sup>15)</sup> 및 L'Officiel<sup>16)</sup>에 나타난 사진과 記事를 衣服의 種類別로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커트의 가장 뚜렷한 變化는 짧아진 길이였으며, 브라우스는 부드러운 여성다움을 強調하였고, 자켓은 대부분 box 형태로 칼라가 넓어지고 있었으며, 바지는 풍성한 것과 통이 좁은 것이 並行하였고, 원피스는 low-waist의 허리선이 特徵的이었다.

### Ⅲ. 假 說

中年期 女性의 身體의 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假說을 설정하였다.

- 1) 身體的 滿足도는 衣服의 滿足도 및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와 中年前期, 中年後期, 그리고 中年全體에서 正的인 상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流行에 대한 關心과 流行 스타일의 選好와는 中年前期, 中年後期, 그리고 中年全體에서 正的인 상관계가 있을 것이다.

### Ⅳ. 方法 및 節次

#### 1. 測定道具

##### 1) 身體的 滿足도 檢査

Mclean<sup>6)</sup>이 사용한 Secord 와 Jourard 의 Body Cathexis Scale(신체적 만족도 검사)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및 몸통에 관련된 28문항, 신체 기능에 관한 7문항 및 기타 신체에 관계된 8문항등 총 43문항의 Likert-type 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身體의 여러 部分과 機能에 대하여 滿足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衣服行動 檢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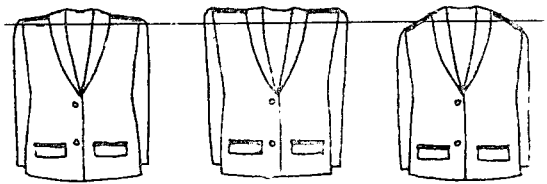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 衣服의 滿足도, 身分象徵性, 流行에 대한 關心 및 流行 스타일의 選好의 다섯 측면을 측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 Mclean<sup>6)</sup>이 사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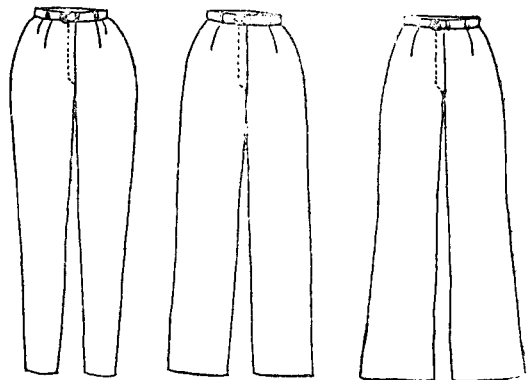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인정된 Likert-type 의 총 14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전반적인 fit, 활동을 위한 여유분, 가슴, 진동둘레, 팔꿈치 윗부분의 소매통, 소매길이, 허리, 허리선의 위치, 어깨, 목둘레선, 엉덩이, 넓적다리, 밀길이 및 치마 또는 바지 길이에 관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衣服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② 衣服의 滿足도, 身分象徵性 및 流行에 대한 關心: 先行研究들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인정된 Likert-type 의 문항들을 각기 10문항씩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즉 衣服의 滿足도는 이 경손<sup>11)</sup>에서 7문항, 임 춘봉<sup>10)</sup>에서 3문항, 身分象徵性은 이 금실<sup>14)</sup>에서 10문항, 流行에 대한 關心은 강 해원<sup>17)</sup>에서 10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총 30문항은 무작위로 혼합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소유하고 있는 衣服에 대하여 滿足하고, 衣服으로 자신의 經濟的 身分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衣服을 選擇할 때 流行傾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流行 스타일의 選好: 유행 스타일의 선호 검사는 본 연구를 위하여 作成되었으며, 1981년 봄의 最新流行情報<sup>15,16)</sup>를 토대로 專門家들의 評價를 거쳐 선정되



자켓의 어깨높이



바지통

<그림 1> 유행스타일의 선호

었다. 그 내용은 브라우스의 칼라 넓이와 장식성, 치마 폭과 길이, 바지 통, 원피스 허리선의 위치, 자켓 깃의 넓이와 허리가 들어간 정도 및 어깨를 강조한 정도이며, 전체 6문항의 line drawing이다. 각 문항은 <그림 1>과 같이 당시의 최신유행 스타일, 지난 해의 유행 스타일, 유행이 지난지 오래된 구식 스타일의 3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었으며, 最新流行 3점부터 舊式 1점까지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衣服을 새로 사거나 맞출 때 流行하는 스타일의 衣服을 購入하는 것을 의미한다.

3) 衣服現況 檢査

衣服購買 場所는 이 금일<sup>14)</sup>에서 1문항을 수정 사용하였으며, 衣服購買 方法 및 韓服着用에 대한 2문항은 본 연구를 위하여 作成되었다.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中年期 女性 351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으며, 中年前期 246명, 中年後期 105명으로 經濟水準 및 教育水準 分布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說問紙에 의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1981년 6월에 서울 시내 J여자

<표 1> 표집대상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분포

			중년전기 n=246	중년후기 n=105	중년전체 n=351
교육수준	대학원		2%	6%	3%
	대학교		33	10	26
	전문·초급대학		5	12	8
	고등학교		43	31	39
	중학교		10	13	11
	국민학교		6	18	9
	부학		1	10	4
계			100	100	100
경제	상	상	1	0	1
		중	9	10	9
		하	4	3	4
계층	중	상	30	29	30
		중	47	48	47
		하	6	6	6
수준	하	상	2	2	2
		중	1	2	1
		하	0	0	0
계			100	100	100

고등학교 학부형에게 330부, Y대학교 학부형에게 70부, D研書會에 60부 및 개별적으로 40부를 배부하여 총 39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51부가 統計處理에 사용되었다.

3. 研究의 限界點

標集對象이 서울에만 거주하는 일부 中年期 女性으로 年齡이 中年前期에 치우쳐 있었고 經濟水準은 下類層에 속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점과 測定道具가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結果를 擴大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V. 結果 및 論議

1.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관계

變因들의 分布傾向을 살펴보면 身體的 滿足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43~215점이나, 실체는 86~189점이었으며, 全體적으로 보아 120~139점 사이에 中年期の 44%가 포함되어 中年期 女性들의 身體的 滿足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의 滿足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나, 실체는 15~47점이었으며, 전체의 60%가 30~39점 사이로 衣服에 滿足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4~70점이나, 실체는 25~67점이었으며, 40~49점 사이에 中年全體의 51%가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中年期 女性들의 衣服은 비교적 몸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의 문항별 반응분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잘 맞는다고 한 문항은 전 반적인 fit, 활동을 위한 여유분, 진동들레, 어깨, 소매길이의 다섯 부분이었으며, 25% 이상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밀길이, 허리, 엉덩이 이었다.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의 滿足도 및 衣服이 몸에 잘

<표 2>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신체적만족도 (r)		
		(n=351)		
의복변인	연령	중년전기	중년후기	중년전체
		의복의 만족도	.29**	.53**
의복이 몸에 잘 맞는정도		.50**	.47**	.51**

\*\*p<.01

〈표 3〉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이 몸에 잘 맞는 정도 평균치의 연령별 t검증 결과 (n=351)

연령	중년 전기		중년 후기		t-test
	M.	S.D	M.	S.D	
신체적 만족도	136.72	16.49	130.70	17.27	3.03**
의복이 몸에 잘 맞는 정도	45.37	7.16	41.91	6.74	4.31**

\*\*P<.01

맞는 정도 사이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中年前期, 中年後期, 그리고 中年全體 모두에서 의미있는 正的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었으며, 이는 자기 자신의 身體에 滿足할 때 자신의 衣服에도 滿足하고, 또한 衣服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Mclean<sup>6)</sup>, 임 춘봉<sup>10)</sup> 및 이 경손<sup>11)</sup>의 연구에서 나타난 自我概念과 衣服의 滿足度 사이의 관계를 모두 지지하므로 衣服의 滿足度는 衣服으로서 自我概念을 알수있는 有力한 尺度라고 생각된다. 한편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이 몸에 잘 맞는 정도 사이의 관계는 Mclean<sup>6)</sup>의 50대를 제외한 40대만이 正的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美國 女性들은 기성복 착용 때문에 身體的 變化에 따른 衣服의 fit 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敏感하게 의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it 의 문제를 맞춤복으로 充當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年前·後期の 비교를 위하여 身體的 滿足度 및 衣服이 몸에 잘 맞는 정도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中年前期와 中年後期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Mclean<sup>6)</sup>의 결과, Kaluger 와 Kaluger<sup>4)</sup>의 身體的 變化의 대부분이 40대보다는 50대에 뚜렷하여 진다는 진술 및 Ryan<sup>5)</sup>의 中年期の 體形變化는 衣服이 몸에 잘 맞지 않는 原因이 된다는 진술로써 설명될 수 있다.

2. 流行에 대한 關心과 流行 스타일의 選好와의 관계

流行에 대한 關心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 나, 실제로는 13~41점이었으며, 전체의 74%가 20~29점 사이로 비교적 낮은 유행에 대한 關心을 보였다.

流行 스타일 選好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9~27점이 나, 실제로는 12~24점이었으며, 全體적으로 보아 16~19점 사이를 61.5%가 차지하였다.

〈표 4〉 유행에 대한 관심과 유행 스타일의 선호와의 관계 (n=351)

연령	유행에 대한 관심(r)		
	중년전기	중년후기	중년전체
유행 스타일의 선호	.16**	.01	.114*

\*\*p<.01 \*p<.05

全體 標集對象의 流行 스타일의 選好에 대한 문항별 반응분포를 살펴보면 ① 最新流行 스타일을 비교적 많이 선택한 문항은 자켓 깃의 넓이 및 어깨를 강조한 정도였으며, ② 지난 해의 유행 스타일을 비교적 많이 선택한 문항은 바지 통, 원피스 허리선의 위치, 브라우스의 장식성 및 자켓의 허리가 들어간 정도였고, ③ 舊式 스타일을 비교적 많이 선택한 문항은 치마 폭과 치마 길이였으며, ④ 구식 스타일을 택한 사람이 극히 소수였던 것은 브라우스의 칼라 넓이였다.

流行에 대한 關心과 流行 스타일의 選好 사이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中年前期 및 中年全體에서 상관계수는 낮았으나 正的 상관관계가 있어 〈가설 2〉는 部分的으로 긍정되었다. 즉 中年後期를 제외하고 流行에 대한 關心이 많을 수록 衣服을 새로 사거나 맞출 때 流行하는 스타일의 衣服을 購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流行에 대한 關心과 流行 스타일의 選好에 대하여 中年前期와 中年後期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流行에 대한 關心은 차이가 없었으나 流行 스타일의 選好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Hurlock<sup>1)</sup> 및 Tate 와 Glisson<sup>2)</sup>의 中年期 女性들은 노년기에 가까울 수록 保守的인 옷을 입으려하고 fad 나 最新流行 스타일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는 진술을 지지한다. 즉 본 연구 결과에서도 身體的 變化가 두드러지지 않는 40代의 中年前期에는 流行에 대한 關心이 있으면 유행 스타일의 衣服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身體變化를

<표 5> 유행에 대한 관심과 유행 스타일의 선호평균치의 연령별 t검증 결과 (n=351)

변인	연령 M. S.D	중년전기		중년후기		t-test
		M.	S.D	M.	S.D	
유행에 대한 관심		25.31	4.68	24.82	4.67	.91
유행 스타일의 선호		18.58	2.05	17.63	2.40	3.55**

\*\*p<.01

<표 6> 의복변인 상호간의 관계 (n=351)

의복변인	의복이 몸에 잘맞는 정도 r	의복의 만족도 r	신분 상징성 r	유행에 대한관심 r	유행스타일의 선호 r
의복행동 :					
의복의 만족도	.36**				
신분상징성	-.06	-.26**			
유행에 대한 관심	.13**	.13**	.25**		
유행스타일의 선호	.10*	.21**	.04	.11*	
의복현황 :					
한복착용	-.06	.10*	-.03	.03	-.13**

\*\*p<.01 \*p<.05

거친 50代 이후의 中年後期에는 균형잡힌 體形을 대상으로 한 最新流行 스타일 중에서 전체적인 실루엣, 칼라 넓이등의 유행의 흐름만을 一部 따르거나, 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유행 스타일만을 선택하여 받아들인다고 풀이되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중년기 여성이 대체로 最新流行傾向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作成된 유행 스타일 선호 검사의 내용 및 문항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 3. 衣服變因 相互間的 關係

衣服行動 變因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身分象徵性和 衣服이 몸에 잘 맞는 程度 및 流行 스타일의 選好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意味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身分象徵性和 衣服의 滿足度와의 否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正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韓服着用과 衣服行動 變因과의 관계를 보면 한복의 着用度는 衣服의 滿足度와는 正的 상관관계가, 流行 스타일의 選好와는 否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身分象徵性和 流行에 대한 關心 사이의 意味있는 正的 상관관계는 이 금실<sup>14)</sup>의 연구 및 Gat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외에 身分象徵性和 衣

服의 滿足度와의 否의 상관관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衣服에 나름대로 滿足하는 사람이 구태어 값진 의복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4. 背景變因과 身體的 滿足度 및 衣服行動과의 關係

<표 7>과 같이 본 연구의 배경변인중에서 經濟水準은 그 어떤 변인보다도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과 관계가 많았고, 오직 身分象徵性과의 사이에서만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重要한 變因으로 나타났다. 즉 經濟水準이 높을 수록 자신의 身體 및 衣服에 좀 더 滿足하고, 衣服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며, 流行에 대한 關心이 높고, 流行되는 스타일의 衣服을 選擇하였다. 한편 모든 背景變因은 衣服의 滿足度와 正的인 관계가 있어, 높은 經濟水準과 教育水準에 속하며, 여가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衣服에도 보다 滿足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身分象徵性은 어떤 背景變因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身分象徵性的의 평균점수는 이 금실<sup>14)</sup>의 연구(標集對象 : 76%가 30,40代 女性)보다도 오히려 낮았으며, Hurlock<sup>1)</sup>의 진술, 즉 中年期는 특히 身分을 나타낼 수 있는 物質的 소유를 원하며, 衣服이 身分象徵的의 手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표 7〉 배경 변인과 신체적 만족도 및 의복행동과의 관계 (n=351)

배경변인	경제수준	교육수준	여가시간
	r	r	r
신체적 만족도	.21**	.07	.03
의복이 몸에 잘 맞는 정도	.12**	.08	.05
의복의 만족도	.28**	.23**	.15**
신분상징성	.03	-.08	.02
유행에 대한 관심	.17**	.13**	.10*
유행 스타일의 선호	.12**	.23**	.12*

\*\*p<.01 \*p<.05

는 것중의 하나라는 진술과는 부합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신분상징성의 측정 문항이 본 연구의 標集對象의 年齡層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며, 한편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5. 衣服現況

衣服購買 方法은 주로 사입거나 또는 기성복과 맞춤복의 두 가지를 같이 입는 사람이 의복을 맞추어 입는 사람보다 많았다. 이것은 기성복의 많은 普及, 質의 向上 때문이며, 한편 맞춤복 맞춤에 소비되는 時間 및 번거로움 때문에 맞춤복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衣服購買 場所는 시장에서 사 입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으며, 이것은 經濟的 여유가 있어도 집에서 입는 옷, 일할 때의 옷등을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購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韓服着用은 명절, 禮式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韓服을 입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었으며, 강혜원<sup>18)</sup>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年齡이 많아질 수록 좀 더 많이 韓服을 着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結果를 기초로 中年女性의 합리적인 衣生活을 위하여 다음의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中年期 女性들의 身體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衣服의 올바른 選擇 및 着用 方法에 대한 전반적인 知識의 지도제몽이 필요하다.

둘째로, 衣類生産業者들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衣服의 fit의 문항별 반응분포 및 流行 스타일의 選好 분석을 참고로 한다면 우리나라 中年期 女性들의 體形에 맞고도 즐겨 입을 수 있는 品質 좋은 기성복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259~309(1978).
- 2) Tate, M.T. and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27-336 (1965).
- 3) Lugo, J.O. and Hershey, G.L., *Human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512~535(1974).
- 4) Kaluger, G. and Kaluger, M.F.,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St. Louis: The C.V. Mosby Co., 396~422(1979).
- 5)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306~323(1966).
- 6) Mclean, F.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1978).
- 7) Williams, A., *Fit of Clothings Related to Body Image, Body Build, and Selected Clothing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North Carolina University, (1974).
- 8) Richards, E.A. and Hawthorne, R.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63, 190~194 (1971).
- 9)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29-139(1976).
- 10)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11) 이경순,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12) 신옥순, 자아정체감과 의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13) Creekmore, A.,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er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14)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 15) *Vogue*, Jan., (1981).
- 16) *L'Officiel*, Janv., and Fév., (1981).
- 17)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연세대학교 대학원, 349-375(1974).
- 18)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 1-11(1979).